

“과매도 구간이라는데”… 손실 본 개미들 ‘벼락거지’ 공포

반도체점론·중동리스크에 급등락
기관 매도에 코스피 6800선 밀려
개인 하루 평균 순매수 4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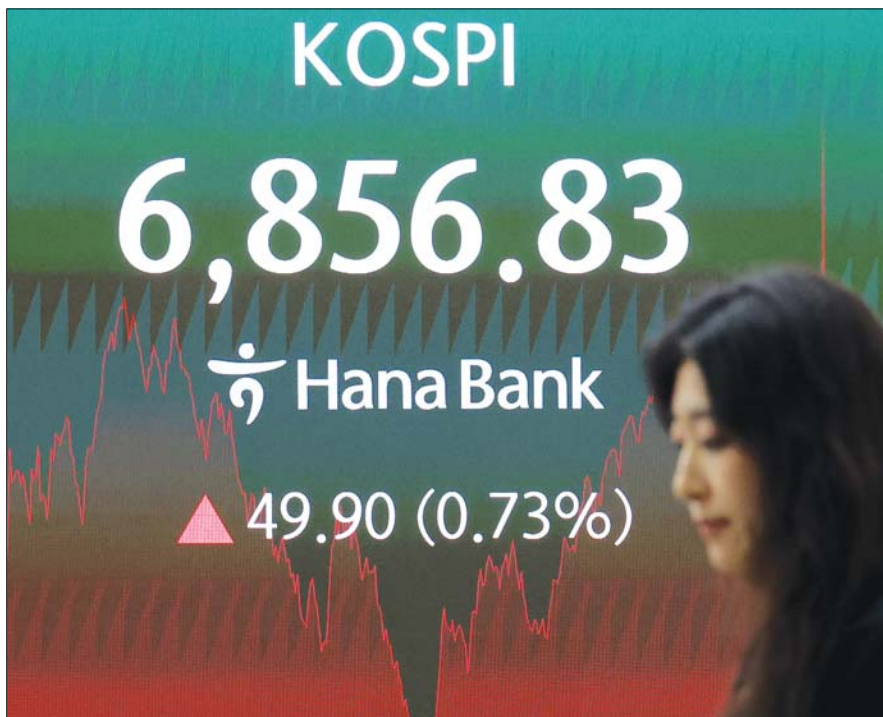
PER 금융위기 수준 저가매수 기대
“완전히 바닥권 도달” 반등여력 충분

3년차 직장인 김모(28)씨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가 지난 13일 큰 손해를 봤다. “하락은 기회”라며 신용 용자를 내 같은 상품을 더 사들였다. 김씨는 “계속 주식장만 보니 삶이 주객전도된 느낌”이라면서도 “기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40대 직장인 하 모씨는 “7월이 시작하자마자 검은 목요일(2일)에 이어 또다시 검은 월요일(13일)까지 투자금 수천만원이 이를 새 날아갔다”며 “전쟁은 중동에서 터졌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손실을 보니 역시 국장(한국 주식시장)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뒤 하락) 우려에 다시 불 붙은 중동 전쟁까지 겹쳐 짧은 반등과 급락이 몇 주 동안 반복되면서다. 지갑 사정으로 여름 휴가를 취소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금이라도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야 할까? 전문가들은 과매도 구간이라며, 리스크 관리와 분산투자를 강조한다.

◆반복되는 악재

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내리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49,900인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9.90포인트(0.73%) 상승한 6856.83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38포인트(1.92%) 하락한 783.98로 마감했다.

/뉴시스

트(0.73%) 오른 6856.83에 마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고점 우려가 커지고,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시장을 짓누르면서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언 샘슨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자금의 랠리는 소수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통제하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자본 지출(Capex)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단약 반도체에 대한 지출이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하방 위험(Downside risk)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 리스크도 악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휴전 중 교전이 재개된 이란을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계 태풍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

통령은 이날 보수성향 라디오 채널 ‘휴 휴잇 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들은 아무 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큰소리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대형주 쏠림 현상으로 바짝 마른 짚더미’처럼 민감해진 시장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 구조가 주가가 오를 때 현물을 추가 매수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비중 조절을 위해 현물을 더 팔게 된다”며 “개인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음에도 기관 매도가 더 크게 나타난 배경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장폐지라는 ‘조강수’를 비롯해 투자자 교육 강화, 기본 예탁금 상향 등 진입장벽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되는 동시에 레버리지 배수 조정이나 종목 허용 범위 확대 등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스피 아직도 싸다

극심한 변동성에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개인 투자자의 매수 열기가 식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1~14일)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의 하루 평균 순매수액은 약 9100억원이다. 지난 달 하루 평균 순매수액인 2조191억원보다 54.91% 넘게 감소했다.

이에 개인 투자자의 ‘실탄’이 바닥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3일 기준 증시 대기 자금 성격의 투자자 예탁금을 109조116억원으로 집계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4일(139조6947억원)보다 30조원 넘게 줄었다. ‘빚투’ 자금도 감소세다. 같은 날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4조7886억원으로 최근 한 달 사이 2조원 넘게 줄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사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10일 기준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6.8배로 통계적 과매도 구간인 ‘-2표준편차’ 수준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5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금융연구원원은 “현재 PER 6.8배는 글로벌 경기침체를 넘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는 이상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격 조정”이라며 “과거 PER -2표준편차 이하 구간에서 코스피 평균 투자 성과는 4주 이후 2.3%, 13주 6.6%, 26주 4.1%, 52주 11.2% 등을 기록하며 전 구간에서 모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도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낮다고 보도했다. 이어 코스피 기업 지배 구조 문제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기준환적 이익 구조 탓에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오랫동안 저평가돼 왔다고 짚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코스피 급락을 예견했던 하나증권도 이번 조정을 과도한 낙폭으로 평가하며 저점 구간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글로벌투자분석실장은 “현재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바닥권(저점)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2027년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 추정치 946조원에 2010년 이후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인 9.96배를 적용하면 코스피 상단이 1만1450포인트까지 열릴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미국 물가·금리 등 거시 변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코스피가 전고점을 넘어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국 물가 안정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며 “8~9월 미국 물가지표가 피크아웃을 확인해 준다면 4분기에는 금리 하락과 함께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의 산타렐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코스피 급락, ETF 강제매도 탕”

골드만삭스, 레버리지 ETF 악순환
기관 순매도 62% 청산 물량으로 추산
코스피 6800선 1차 지지선으로 제시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최근 코스피 급락의 배경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계적 매도를 지목했다. 이번 조정은 반도체 업황 악화보다 유동성에 따른 포지션 청산의 성격이 강하며 메모리 반도체와 기술주에 대해서는 선별적 매수 전략을 제시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코스피, 주요 기술적 지지선을 시험하다’ 보고서에서 “최근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급격한 디레버리징(강제매도)이 장중 변동성을 증폭시켰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일부 2배 레버리지 ETF가 하루 동안 30% 넘게 하락하면서 운용사들이 목표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초자산을 추가 매도했고,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다시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전날 국내 기관 순매도의 62%가 ETF 관련 청산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외국인 순매도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매

등 패시브 자금에서 이뤄졌으며 프로그램 매도 규모는 11억80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수 급락에도 기관투자자의 블록딜(대량매매)은 많지 않았고 일부 추세추종형 헤지펀드에서만 선별적인 매도세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다.

골드만삭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주요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스템 리스크와 과열 마케팅에 우려를 나타낸 점도 언급했다. 향후 규제는 상품 출시를 제한하기보다는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6800선을 가장 중요한 1차 지지선으로 제시했다. 6800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음 지지선은 6500선이며, 이마저 이탈하면 6100~6000선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코스피의 하루 변동폭이 통상적인 표준편차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6100~6000선이 보다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의 기계적 매도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 높은 스와프 금융 비용 등이 국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韓 저평가 매력 여전… AI·반도체 편중 경고

로베코운용, 아시아 재평가 여지 주목
조선·전력기기 등 한국 강점 부각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의 저평가 매력은 여전하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만 쏠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0일 조슈아 크랩 로베코운용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변동성은 높아졌지만 기업 실적과 이익 수준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보다 아시아 시장의 투자 매력력이 더욱 높다고 평가했다.

크랩 대표는 “미국은 추가적인 리레이팅(재평가)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아시아는 여전히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며 “지난 수년간 기업 실적은 꾸준히 개선됐음에도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낮아져 현재는 어닝 대비 매우 저평가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인 데다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 전력기기, 로보틱스 등 AI 인프라와 연계된 산업 경쟁력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도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왼쪽부터) 조슈아 크랩 로베코 아시아태평양 주식운용 대표와 크리스 버쿠워 로베코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 ‘2026 하반기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크랩 대표는 “1년 반 전만 해도 한국 시장은 밸류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며 “AI에 대한 관심이 다소 완화되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강점은 반도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선과 로보틱스, 전력기기 등 AI 인프라와 연결된 산업도 지속적으로 수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로베코는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시장 편중도(concentration)’를 지목했다.

크랩 대표는 “지난 1년 반 동안 시장은 ‘매그니피센트7(M7)’ 등 소수의 AI·빅테크 기업으로 크게 편중돼 왔으며 이제는 이러한 현상이 아시아 시장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하은 기자

삼성자산운용 주도산업 집중 투자 커버드콜 ETF 상장

월말 분배금·초과성과 추구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주도 산업과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탄력적인 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월 분배금과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국내 커버드콜 시장의 대표 상품인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진화형 상품이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최근 1년 동안 연 17%(ETF체크 기준) 수준의 높은 월 분배금을 매월 중순에 지급하는 상품으로, 같은 기간 3조1033억원의 개인 순매수를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신규 상장하는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는 기존 상품의 운용방식을 활용하면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해당 ETF는 코스피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에 더 높은 비중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실제로 2025년 이후 코스피 성과를 상회한 산업은 반도체, IT하드웨어, 사·자본재, 기계 등 4개 섹터에 불과하며, 시가총액 상위 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지수 내 과반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하은 기자